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광장

www.council.jeju.kr

2023 제99호 07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ISSN 2671-9754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민들의 성실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는 1년을 보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도민께 다가갈 것을 다짐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한결같은 진심을 담는다.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 역할에 최선"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1주년
3일 기념식서 새로운 도약 다짐
45명 의원 청렴 실천 결의 나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원 1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 의회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4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우수의정대상에는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이정엽(국민의힘, 대륜동)·정이운(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12대 개원 1년간의 기록 영상을 시청하고 장정언 제4대 제주도의회 의장을 초빙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의 역할, 지역의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한 자세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특히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청렴송'을 공연하며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이 모두 참여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 결의문을 채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주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갔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제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와 소통의 마음으로 도민께 더 다가가는 제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12일 개회해 19일까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도지사 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포함한 총 5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또한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폄하와 왜곡에 대해,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제주평화대공원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에 나섰다.

이날 김경학 의장은 "민생의정을 꼼꼼히 챙기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45명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20회 임시회는 오는 9월8일부터 9월22일까지 열리며, 올해 두 번째 도정·교육 행정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지면 안내

제12대 개원 1주년 ▸3
상임위 이모저모 ▸6~7
생생 의정활동 ▸8~9
사무처 소식 ▸12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현장 의정 다짐”

제419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개·폐회사 통해
제주 지역 주요 현안 지적
행정체제 도입 관련 우려
복지 관련 변화 체감 부족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마련 당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제41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구하는 정책 의정,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현장 의정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관련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 버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오영훈 지사가 공약으로 발표한 제주형 신복지 정책을 거론하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예산 25% 실현을 약속한 도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만큼 변화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이다. 기존의 복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것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특히 “제주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2천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담 교육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습과 정서, 행동, 심리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 교육 대상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교육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19일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가옥과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의 규모와 양태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하천변과 연안변 등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도민대피요령 등 안전 매뉴얼이 현실에서 잘 가동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가 제주도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환경부에 제주도의 입장과 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도민들이 걱정하는 하수처리시설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도시설 노후화, 미처리하수 방류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 수확의 계절이 다가온다. 농촌에서는 인력 구할 걱정에 근심이 앞서고 있다”며 “농가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 마련에 서둘러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지방의회 박람회 ‘은상’

7~9일 대전컨벤션서 열려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
지방자치 발전 공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10개 지역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지난 7~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 부활 32주년,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와 지방행정의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는 장으로 마련됐다.

8개 광역시·도, 45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제주도의회는 홍보관을 설치, 의정 활동을 널리 알렸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지난 1년간 펼쳐온 의정 활동을 선보이는 한편 출범 30주년을 맞은 4·3특별위원회 활동과 베트남·중국·몽골 지방의회와의 활발한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민들의 일상회복과 서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의정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변화의 시기…과감한 규제개혁 이뤄낼 것”

김 경 학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소회와 향후 포부 밝혀

“오직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걸어왔다”
“열린 자세·소통의 마음으로 도민께 더 다가가겠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다졌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관심과 격려, 질책과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12대 의회는 1년 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시작했다. 신3고와 함께 경제 위기, 민생 위기 등 복합위기의 여파가 거셌지만, 저를 포함한 마흔 다섯 명의 의원 모두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의회에 주어진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통해 도민을 대신해 꼼꼼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협치와 균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공동 국비 확보단을 꾸려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고,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생활 속 불편을 걷어내고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청년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제안해 시행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이라며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도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성도 높였다”며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소 중립 실현, 플라스틱 제로 달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의회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의회세션을 개최하는 한편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등 지방외교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돕는 관리형 의장 역할을 하려고 해왔다”면서 “마흔다섯명의 의원들은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출범 1주년을 맞은 지금은 변화의 시기”라면서 “변화의 흐름을 순풍으로 받아들여 미래를 주도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12대 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 낡은 제도와 관행에서 탈피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열린 자세와 소통의 마음으로 도민께 더 다가가겠다.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더 부지런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

1 제주 현안문제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위한 4·3 특별위원회 구성
· 사회보장 돌봄체계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구성
· 탄소중립사회 실현 등을 위한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2 도의회-도 상설협의회 통한 협력체계 구축

· 2022.09.08.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6개 의제 공동협력 합의
· 2023.02.13.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6개 의제 공동협력 합의

3 대의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의 역할 충실

· 13회의 회기 운영·787건의 의안 처리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의 문제 지적으로 견제와 감시:196건
· 도민 사회가 공감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을 통한 자격 검증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방법 개선·운영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13개 단체 결성 활성화

4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 환경도시 분야 주요 현안 개선 및 정책 방향 모색
· 지속가능한 1차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안정화와 제주산업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지원 방안 모색

5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및 세계화 노력

·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미국의회 송부
·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성명
· 4·3에 대한 무분별한 역사왜곡 즉시 철회 촉구 성명 등 발표
· 4·3이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 되도록 교과서 편찬준거에 명시

6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구현

· 서귀포시 청사내 의정소통실 마련
· 도민 소통 역량 강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협력팀 신설
· 청소년 의정체험 재개 운영 및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재개
· 취약계층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매 회기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개최
·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등

대한민국의정대상 송영훈·임정은 의원 수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최고위원장상·최고의원상
"의회 성과·지역 발전 기여"

제17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최고위원장상'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최고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회조직 활동의 총체적 성과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를 평가해 수상하고 있다.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한 송영훈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도와 현안 및 정책 조정 역할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영훈 의원은 "처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을 때 부담감이 컸지만 동료와 선·후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모든 의원과 직원에 이 공을 돌리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고의원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임정은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정책을 발굴함은 물론 농업,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임정은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제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됐다.

송영훈·김기환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쾌거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최우수상을, 김기환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3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입법 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시상한다.

송영훈 위원장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 및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송영훈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입법 초점을 맞춰 애쓴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환 부위원장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례 조례'로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 보행환경이 개선, 보편적 조명 복지가 실현됨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밝은 도시 및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입법 활동 부문 최우수·우수상 영예
음주운전 예방·보행환경 개선 조례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 평가 받아

김기환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민에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더 안전한 제주, 더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6월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제12대 2기 원내대표 현길호·현기종·정이운 의원

현길호

현기종

정이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을 중심으로 수석부대표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부대표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의원, 대변인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정책위의장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임했다.

현길호 원내대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생 문제와 현안에 대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을 원내대표로 하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부대표에는 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대변인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책위의장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이 각각 선임됐다.

현기종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동행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교육의원을 대표하는 미래제주의 원내대표로는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이 선임됐다.

정이운 원내대표는 "제주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렴한 의견들을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복장 간소화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하절기를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의원 및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의전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장 간소화를 연중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장 간소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품위 및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복장을 착용하며 '노 타이(No Tie)'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김경학 의장, 재난 대비 철저 주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비상근무 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호우 대비 상황 보고 회의에서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국 재난 안전 관리 상황 및 제주도 차원의 사전 조치 사항과 중점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보고 회의에서 "육지부는 폭우로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기후 변화로 갈수록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리는 만큼 남수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청구, '주민e직접'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권자 수는 지난 1월 10일 기준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주민은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주민e직접시스템'에 접속,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주민조례 청구'제정 이후 4개의 조례안이 심사됐으며 심사 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의결기간 연장 1건, 각하 1건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직원 국내연수

6월29일~7월1일 강원도서
우수 의정정책 사례 견학
전문지식 습득·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원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 우수 의정정책 사례 견학 및 조사를 통해 심도있는 정책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기간 한용만 청렴교육전문강사의 '청렴 반부패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과 이영환 비즈프라임㈜ 대표이사의 '챗 GTP 활용 의정활동 전략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산업 특성화 육성 우수사례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를 방문한 데 이어 최다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홍청군청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강원도의회와 의정교류 시간을 갖고, 양 의회간의 친목과 화합 도모와 더불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관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역량을 키우고 다른 지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전체 의원 및 직원간에 공유하고 제주 지역에 적합한 정책 발굴 등 정책의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며 "특히 제주 현안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에 대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42건 조례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도내·외 법률·입법전문가, 문화·예술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해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책임 통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지난 1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문을 통해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과 최근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대표'가 갖춰야 할 윤리수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도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제주 고도관리, 유연한 접근 필요”

환경도시위, 13일 토론회 개최
관련 전문가, 개선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합리적 고도관리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성호 제주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을 위한 도시계획’,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의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합리적 고도제한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황경수 제주대 교수, 한다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선은수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선은수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는 “지난 30년 동안 고도지구가 지정돼서 지속되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제주 지역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고도기준의 순기능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제는 고도지구를 지정해야 할 곳과 지정하지 않아야 할 곳을 가려내야 할 때”라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다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로지역 중심의 일괄적 고도관리 방안이 아니라 필지의 형질, 건축물 노후도·규모·공실률 등 블록 단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성격의 공간을 그룹으로 묶어 특성에 따라 신축, 재건축, 재정비 등의 고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고도지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화두를 던지는 것이 도민 사회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부분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담아냈다.

행정자치위, 특별자치 균형발전 간담회 개최

1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 균형발전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제주특별법의 원활한 개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균형발전 선도 과제에 대해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국회 등 중앙정치권 공감대 형성 △제주 특별행정기관 국가 환원 등 특별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제주특별자치의 위상에 걸맞은 국회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분권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자치 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의 정책 성과와 시행착오를 국회의원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와 제주의 특별자치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황국 부의장 ‘전공소대특위’ 위원장 선출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이 지난달 23일 서울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전공소대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공소대특위는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을 논의하고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을 전파하는 등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김황국 부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과 연대해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 정책과 개별 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책무”라고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했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찾아요”

31일까지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제주 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입법 활동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31일까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민 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제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등 총 4개 분야다.

접수 방법은 전자우편(kyi6242@korea.kr)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064-741-2273)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체제 개편 용역 향한 날 선 비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각종 조례안 심사에 나섰다.

상임위원회별 지역 주요 현안 논의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조례안 심사 보류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지원 조례 통과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지난 18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11일 도민보고회, 13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논란을 넘어서 혼란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현재 도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과연 행정시 체제 때문인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과업지시서 때부터 줄곧 강조했었다. 연구 용역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읍면' 모형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했고, 전문가들은 '시읍면' 모형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떤 게 맞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발의한 조례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 출산·산후조리 지원 △위기 임산부 아동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베이비 박스' 운영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경미 위원장은 "조례 지원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이를 더 강화하는 내용들"이라며 "'베이비 박스' 운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 가결했다"라고 수정 가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도내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 기존 처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 용량 부족 등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되고 있다.

이날 함께 상정됐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광령리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됐다.

의원들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정성과 주민 불편, 인근 위치한 축사로 인해 제2의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개발 중 혹은 개발 후 우수 흐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각종 내용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난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속 제기되는 제주지역 '바가지' 논란을 두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지역 물가와 관련해 적정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TF팀을 구성한 만큼 적극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도 "중앙언론에서 제주 물가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제주도가 물가가 높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해 언급하며 "장애 범주에 속하진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의도 필요하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 제도, 지원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철회하고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에너지 공사의 역할이 애매하다"고 꼬집는 한편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역시 "공공주도 풍력사업이 공공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지난 14일 제419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역 A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와 B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와 관련한 현안 보고 시간을 가졌다.

A학교 관련 학생인권 침해 건은 학교장이 관련 교사들을 서면 조치했으며, 현재 교육청이 수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학교의 기출문제 재출제와 관련해서는 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교사에 대한 처분사항을 통보했다.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B학교 말고도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있다"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나 불안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에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 교육청으로 호소를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학교와 학생간 신뢰 관계가 우선 회복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일하는 도민 권리 향상 이뤄져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김종진 이사장 초청 강의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 6월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초청 강의는 일하는시민연구소 및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종진 이사장은 취약 노동 현실, 지방 노동 행정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주의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제주지역의 노동정책 과제로 다차원적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 모색이 제시된다. 시혜와 배려, 보호의 관점에서, 주체와 평등 그리고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도민의 권리 향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대표의원은 "현대 사회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는 아르바이트 문제부터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간의 취약 또는 사각지대에 대한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확인하고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기 예결위원장 양용만 의원 선출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국민의힘, 대륜동)·한동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강충룡(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박호형(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양용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도의회에 제출되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 타시도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행정안전부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충청남도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 대전광역시 사계절 상상 놀이터를 방문했다.

지난 6~7일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놀이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는 온 가족이 다함께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어린이회관 사계절 상상놀이터는 시설 구성 단계에서 아동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조성됐다.

고의숙 대표는 "놀이시설 조성 시 기획 단계부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놀이공간을 기획한 우수 놀이시설"이라며 "추후 제주도 지역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안전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10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는 지난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연안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선진화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이 '제주의 연안재해 문제와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박창열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은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화, 안전취약계층 등 재해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 방재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실시간 예보 기반의 안전감시 및 관제 시스템 도입, 불확실한 재난여건 속에서 실시간 안전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임정은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펼쳐졌다.

임정은 대표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 등에 따르면 연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들로는 태풍, 해일,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이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안재해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연안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4·3 종교계 피해 공유…3대 종교 한 자리

4·3특별위, 12일 정책토론회
화해·상생, 평화·인권 실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주4·3피해 종교단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4·3 피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단체가 실제 4·3 당시 받은 피해실태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념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금순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제주4·3 종교계 피해 현황과 피해 종교계 지원에 관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용범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 회장, 임문철 정난주성당 주임신부, 김인주 봉성교회 목사,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등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제주4·3 당시 피해 실태는 물론 향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돼 4·3피해 실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는 것은 4·3 정명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다 자치 실현 방안 '머리 맞대'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6월27일 정책토론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고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혜영 전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과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오상필 과장은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추진상황'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송창권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 바다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간 바다 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주적으로 제주 바다의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기필코 바다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확립 돼야"

도시·교통 문제연구회
18일 대회의실서 토론회

제주지역 사람 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가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사람 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부분의 목표와 역할', 조항웅 ㈜인트랜 대표의 '제주지역 사람중심 교통체계 및 가로 공공성 강화 추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 이용자 중심의 도시교통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강 향상과 기후문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변화, 녹색교통수단,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도시 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사람 중심 교통 전략으로 생활권 자전거 구축과 가로공간 관리체계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이 좌장을 맡아 황경수 제주대 교수,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 김경모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앞으로의 도시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일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을 테지만 도시와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환경특별위, 도개발공사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달 28일 수열에너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교래리 삼다수공장의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확인하는 한편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시설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설 현장확인과 더불어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삼다수 공장의 시설과 제품 생산에 있어서 친환경적 운영,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에 대해 청취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제주 CFI2030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활용에 선도적인 역할과 RE100 기업의 모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구심점이 돼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경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적극적 수용은 물론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친환경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청렴실천 당당대한민국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돼요

Q1 공기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공기업(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공기관인 공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A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 합니다.

Q2 민간기업 임직원이 공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기업(공공기관)의 사외이사(비상임)를 겸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같은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기업의 비상임 사외이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임직원은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민간기업 임직원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않습니다.

Q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본사 별관 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A는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담당자인 B의 배우자 C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줬고, B는 C로부터 건설업자 A가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줬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을 수수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공직자인 B는 배우자인 C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A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행했다면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2호).
- 반면, 배우자인 C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도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B는 배우자인 C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2호).
▶건설업자 A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공직자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신기한 제주어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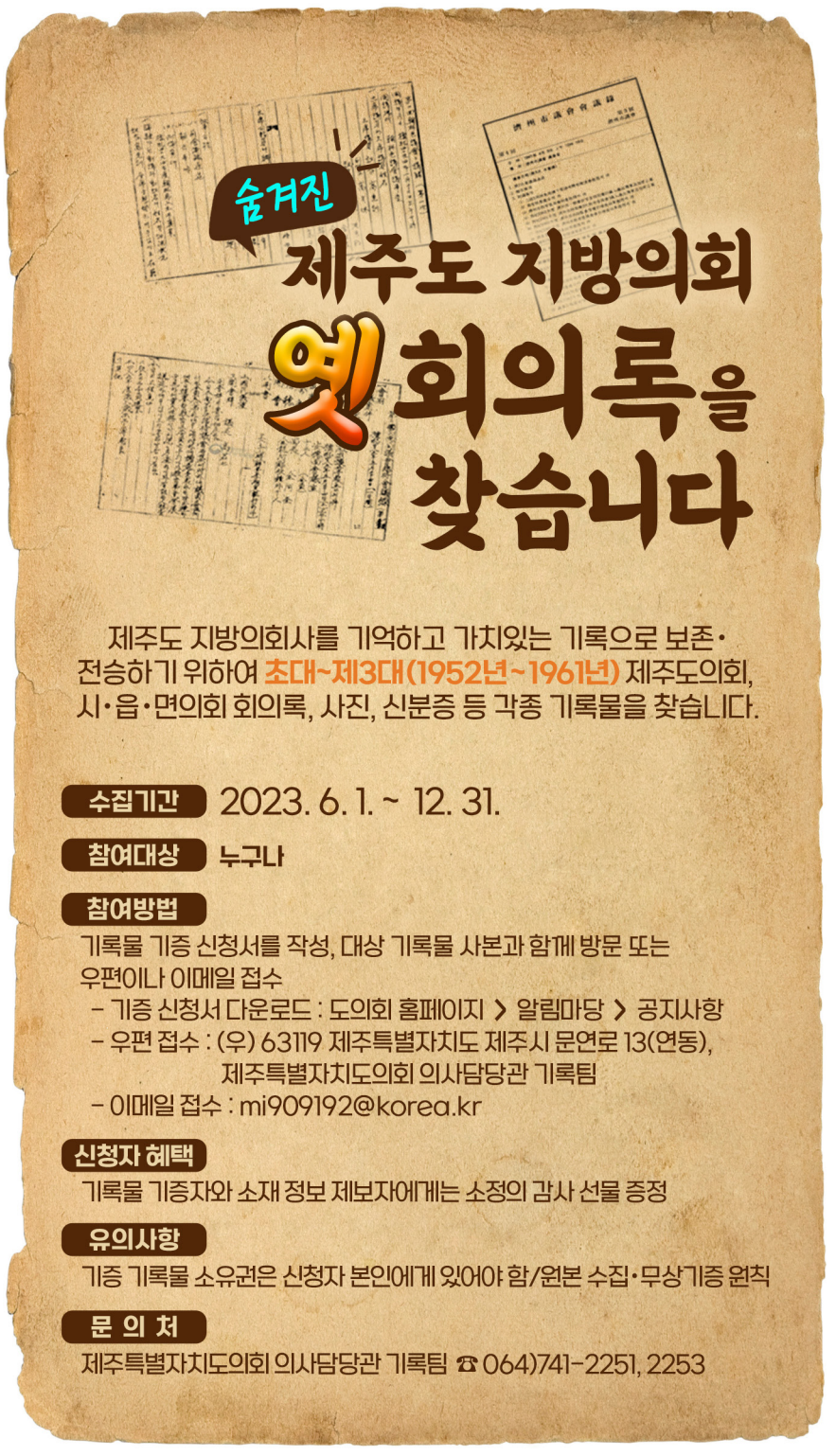
다울이다

(동사) 서둘도록 재촉하다

〈예문〉
"나나네 집이선 큰똘 '가가'를 ᄆᆞ녀 풀아사 ᄒᆞᆯ 건디 '나나'가 아기 때 어멍아방덜찌레 정혼ᄒᆞᆫ 그 새스방 칩이서 다울리는 셍인고라 족은 똘 '나나'부터 풀아사 뒈켄 ᄒᆞᆸ데다." "게메게. 그건 정우가 아니주마는 뭐셍 못 ᄀᆞᆯ은다게"

· ᄆᆞ녀, ᄆᆞ저, ᄆᆞ녜, ᄆᆞ제, ᄆᆞ침, 모녀, 몬첨, 몬처 : 먼저
· 풀다 : 결혼시키다 · 어멍 아방덜찌레 : 어머니 아버지들끼리
· 새스방칩이서 : 신랑집에서 · 생인고라 : 모양인 듯
· 뒈켄 : 되겠다고 · 게메게 : 그러게 말일세 · 정우 : 경우
· 뭐생 : 뭐라고 · ᄀᆞᆯ은다 : 말한다 ·~게(첨사)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풀뿌리 문화’와 문화의 지역경제 효과

박 호 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표 사례 ‘신산공원 빛의축제’
지역민 문화 향유·관광객 유입
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문화’는 영어로 ‘컬쳐(Culture)’라고 하는데, ‘경작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의 문화 역시 더 이상 향유만 하는 것을 넘어 생산의 동력이 되는 ‘자원’으로 분류된다. 예전에는 석탄, 석유가 중요한 생산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자원’이 생산력을 이끌기도 한다.

한편, ‘풀뿌리 문화’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생활 곳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문화를 뜻한다. 풀뿌리 문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이 특정 엘리트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가진 자들이 누리는 호사가 아닌 모두가 창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제주는 이러한 ‘풀뿌리 문화’ 실천을 비롯하여 이런 소중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생산’ 해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는 문화예술의 생활화, 즉 풀뿌리 문화를 실천하면서 이 문화를 기반으로 골목상권까지 살리는 예술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2019년부터 개최된 ‘신산공원 빛의 축제’는 풀뿌리 문화와 문화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 좋은 예시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인 ‘신산공원 빛의축제’는 제주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생활 속에서 마련함은 물론 제주의 특색있는 문화축제에 관광객까지 동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신산공원은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산공원 문화의 거리 버스킹 행사’가 그것이다. 7~8월 매주 토요일 저녁 도심 속 푸르른 신산공원에서 누구든지 문화예술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공연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정기 공연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공원 문화의 거리 버스킹 행사’는 지역 예술인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수시로 즐길거리 제공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상 자체가 예술이 되면서 예술이 계속적으로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동네, 골목, 소규모 지역단위부터 문화예술이 육성되고 자연스레 일상에 스며들고, 또다시 사람들이 찾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적인 ‘풀뿌리 문화’가 제주 전역, 전국에 퍼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삶이 예술 그 자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주에서 만나는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김 미 현
서귀포예술의전당
주무관

7월29일부터 8월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서 펼쳐져
오페라의 새로운 경험 ‘약속’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를 묻는 사람이 많다. 오페라는 어렵고 뮤지컬은 대중적이라 친숙하다고 한다. 오페라나 뮤지컬 모두, 음악과 무용, 연기에 미술까지 합쳐진 ‘종합무대예술’이다.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 첫 번째, 뮤지컬은 마이크를 쓰지만, 오페라는 자기 육성으로 작품을 전달한다.

두 번째, 뮤지컬은 연극에, 오페라는 음악에 더 무게를 둔다.

세 번째, 뮤지컬은 번역해 공연하기도 하지만, 오페라는 대개 원어로 불린다. 이 세 번째 때문에 관객이 오페라를 어렵게 느끼는 것 같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이러한 점에 착안,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처음 문을 연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음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연령대의 초심자도 오페라의 매력을 느끼도록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다. 때문인지 지금은 오페라에 심취돼 매년 이 페스티벌을 찾는 단골 관객도 꽤 된다.

오페라 인문학 특강도 진행 중이다. 관객의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각도의 예술적 감성으로 작품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페라가 고전적이라는 선입관을 낮춰주고 친근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초보자부터 애호가까지 여러 계층 관객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초보자를 위한 오페라 특강, 어린이를 위한 작품, 갈라콘서트로 구성된 주요 아리아들, 그리고 최고 오페라 스타들의 전막 오페라까지.

오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의심을 품더라도 서귀포예술의전당을 한 번 방문해주길 바란다.

29일부터 8월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페라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약속 드린다.

반려동물 양육 수칙 동물등록부터

김 현 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팀장

2개월령 이상 의무사항
유기·유실 방지 및 책임강화
성숙한 문화조성 기틀 마련 ’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는 552만 가구로 지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반려인 1500만 시대가 도래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팻팸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도에서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문화축제 시 동물등록 홍보 등을 추진했으나 2022년 말 기준 도내 반려견 등록율은 약 58%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파악된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게 의무사항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만원~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71곳(제주시 56, 서귀포시 15)을 반려동물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히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해 반려가구의 부담을 덜고 있다.

동물 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등록관리를 통한 반려인의 책임강화, 질병 관리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기반마련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펫티켓 개선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 반려인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준수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도민들께서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름을 찾아서”

함덕서우봉해변에서 여름을 만났다. 청명한 하늘 아래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단번에 시선을 빼앗는다. 여름의 낭만을 찾는 방법은 제각각. 한낮의 더위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을 쌓는다. 사진/김성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부회장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퇴임식 열려

손광수·강순희 주무관
30년 공직생활 마침표
포상 수여 및 격려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2023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개최했다.

공직을 떠나는 손광수·강순희 주무관은 6월30일자로 30여 년간 헌신 봉사했던 공직생활에 영예로운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행사에 가족과 도의원, 동료 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환송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포상 수여, 기념 영상 상영, 의장 격려사, 퇴직자 소회, 재직기념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퇴직자들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퇴임식에서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남은 공직자분들께서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퇴임식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후 최초로 실시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면서 “두 분이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손광수 주무관에는 근정포장, 강순희 주무관에는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김이택 지방서기관, 정책입법담당관 임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4일 202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제주도의회 인사는 총 24명으로, 제주4·3평화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김이택 지방서기관이 정책입법담당관으로 임명됐다.

김이택 정책입법담당관은 1991년에 공직에 입문해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장, 공항확충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관 승진 의결자인 강동희 주무관은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이 밖에 인사명단. ◇승진 ▲6급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상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민혁.

의정 홍보 최우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의사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4일 집무실에서 2023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부서는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의사담당관, 우수 부서는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 부서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기고왕으로 공보관실 강은영 주무관을 선정, 함께 시상했다.

김경학 의장은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눠 홍보우수 부서를 시상하고 있다.